

함열농공단지, 기업 유치 ‘속도’

익산시, ‘소재·부품 산업 기회발전특구’ 산단 9만평에 추가 지정 추진
특구 지정시... 각종 세제 혜택·보조금 지원 등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익산시가 함열농공단지에서 ‘소재·부품 산업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이번 추가 지정은 바이오 산업뿐만 아니라 소재·부품 산업 지원을 통해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보다 다양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시는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소재·부품 산업은 제조업의 핵심 기반으로,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초 자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시는 이번 특구 지정을 위해 2개 기



업과 총 525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에 특구 계획을 제출했다.
전북자치도는 익산시를 포함해 남원, 고창 등 총 129만㎡(39만 평) 규모의 특구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추진 대상 산업단지는 2019년 준공된 익산함열농공단지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 각종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 등 맞춤형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특구 지정 시 주요 혜택으로는 △세제 감면 △보조금 확대 △상속세 면제 가능성 등이 있다. 우선 창업 기업이나 신설 사업장은 소득세·법인세를 최초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은 50%를 감면한다.
또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 중견기업 기준 5%에서 8%로, 중소기업 기준 5%에서 10%로 가산해 상향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될 경우 이전 기업에 대한 상속세 면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바이오·소재·부품 두 분야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산업 구조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 혁신을 더욱 촉진할 계획”이라며 “소재·부품 특구가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아동 안심등교 수호대’ 사업 확대

익산시, 7개 초등학교 저학년 48명 일대일 배치로 안심등교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사회문제 해결 기여·어린이 안전망 강화

익산시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어린이 안전망 강화를 위해 ‘아동 안심등교 수호대’ 사업을 확대한다.
익산시는 올해 새학기부터 7개 초등학교에 ‘아동 안심등교 수호대’ 48명을 배치해 사고 없이 안전한 등교를 책임진다고 13일 밝혔다.
‘아동 안심등교 수호대’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안전한 등교를 지원해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해 시범 도입된 사업이다. 수호대 한 명이 한 어린이와 일대일로 짝이 돼 집 앞부터 학교까지 안전하게 동행한다.
수호대는 노인 공익 활동 사업(노인 일자리) 참여자로 구성돼 있다.
시는 지난해 시범적으로 동남초등학교와 동산초등학교 2곳에 20명을 배치해 사업을 추진했다.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올해는 수요조사를 실시해 사업 확대에 나섰다.
보통 노인 공익 활동 사업은 주 2~3회 하루 3시간(월 10회) 근무하는 사

업이지만, 매일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업무 특성상 한 주에 5일, 매일 1시간 30분씩 활동하도록 추진해 사업의 효율성도 보장했다.
시는 수호대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보장할 방침이다. 특히 수호대가 업무 도중 아동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도록 지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수호대는 학교 인근 우범지역이나 공사장 등 위험지역을 순찰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
시는 최근 들어 학부모와 어린이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학교와 학부모, 노인 일자리 참여자와의 협의를 통해 학교 사에도 안심귀가 지원을 추진하도록 사업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스쿨존 지원사업으로 63개 초등학교에 717명을 배치해 촘촘한 통학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주민과 함께하는 읍면동 신년대화 성료

수송동 시작으로 27개 읍면동 순회... 주민 목소리 시정 반영 방침

주민들의 솔직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정 정책을 소개했던 2025 을사년 군산시 주민과 함께하는 읍면동 신년대화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신년 대화는 총 2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12일간(1월 7일~2월 11일) 이어졌으며, △강임준 군산시장의 신년 인사 △주요 시정·시책 설명 △시장과 주민의 현장 대화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일상 속 불편 사항부터 읍면동별 주요 현안 및 시정 현안까지 폭넓은 의견이 교환되



었고, 작년 신년 대화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처리결과를 안내해 주민들의 행정 신뢰도 제고 효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신년 대화의 주요 화두는

새만금 관할권 문제였다. 많은 시민들이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에 대해 질문을 했고, 강 시장은 새만금 신항은 군산항의 대체항으로 조성된 군산시 관할의 항만임을 설명했다. 이어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이 군산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대화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 발굴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중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실시해 다양한 의견 수렴 확대와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산사태 피해 복구 작업 본격 추진

해빙과 동시에 이달 중 착공

군산시가 산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빙과 동시에 속도를 내고있는 이번 사업은 지난해 7월 10일 군산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한 산립피해 복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당시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500년 빈도의 1시간 최대 강우량 131.7mm(어청도 146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군산은 관내 57개소에 산사태 10.15ha, 임도 0.51km 규모의 산립피해를 입었다.
이번 사업은 보다 체계적이고 확실한 항공복구 추진 정책의 하나로 3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2월 중 재해복구사업에 착공하며, 장마 전 5월 말까지 복구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사태 재해복구사업장뿐만 아니라 해빙기를 맞아 산사태취약지역, 임도시설, 사방시설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간여행축제학교
참여자 모집... 27일까지

군산시가 지역 축제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축제 기획자 및 활동가를 양성하는 ‘군산시간여행축제학교’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참가자들을 ‘가족친화형, ESG형, 문화역사형, 지역경제형’의 4개 주제별 그룹으로 나눠, 군산에 적합한 축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축제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교육으로 추진된다.
교육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총 7회이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군산시 청년들 3층 청년강당에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뉜다.
일반과정은 축제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심화과정은 기존 2022년~2024년 축제학교 수료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교육을 마치면 과정별 수료증을 제공하고, 군산시간여행축제 시민기획 프로그램 공모에 지원할 때 가점이 주어진다.
신청 기간은 14일부터 27일까지이며, 군산시 누리집 및 군산시간여행축제 누리집에 게시된 참여자 모집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또는 참여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dairumedu@naver.com)로 제출해도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국립군산대, RIS에너지신
산업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국립군산대학교 RIS에너지신산업사업단(단장 장민석)은 오는 18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C) 1층 컨벤션홀 1, 2에서 2024 2차년도 RIS에너지신산업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기회를 발견하고 변화를 활성화하라’라는 슬로건 아래 RIS에너지신산업사업단 운영 프로그램 및 2023년 41개, 2024년 37개의 소(소)과제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기업(기관)을 홍보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또한, 전북자치도 내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체험·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에너지신산업 분야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조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극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극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